

“관람객 중심 전시 선보이겠다”

이숙경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물 흐르듯 동선·편의시설 배치
전시 가벽 등 친환경 소재 활용
민주화 항쟁 위로 메시지 전달



이숙경 총감독

“관객의 시점에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객 중심형 전시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은 지난 6일 입국, 오는 4월 7일 개막을 준비 중이다. 이 감독은 13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해포식에서 첫 전시 작품을 공개했다.

이 감독은 이번 전시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에 대해 “물은 ‘약한 자의 승리’를 상징한다”며 “오랜 시간 스민 물이 바위를 뚫듯 약한 자의 승리 가능성을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전시장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전시 또한 환경·친환경 문제와 인류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전시관 개념을 다시 세웠다”고 말했다.

전시 작품의 70~80%가 신작으로 채워진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이 감독은 “신작을 만들 기회가 다양해지면 예술가에게 참여 기회도 많아진다”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가 끝나면 다양한 곳에서도 선보일 것이다. 참여작가 79명의 작품 모두 의미가 있어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다.

전시실은 관람객 동선에 맞춘 작품 구성과 편

의시설 등을 통해 관람객 중심형으로 구성한다.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품 설명 팸플릿도 설치한다. 전시관을 돌고 나면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들도록 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MZ세대 추세를 반영해 인증샷을 위한 사진 촬영 장소도 마련한다.

이 감독은 “이번 전시의 핵심은 관객이다. 비엔날레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5관을 1관으로 활용하는 등 비엔날레에 처음 온 관객들이 불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선을 잡았다”며 “특히 1관에서는 이번 비엔날레를 축약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

다. 전시관을 돌고 나면 소설 한 권의 이야기를 듣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관 곳곳마다 친환경 벤치를 설치해 쉽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비엔날레는 어렵지 않다. 작품 해설도 길게 하지 않고 가능한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쓰겠다. 비엔날레를 보러온 관람객이라면 그 정도는 읽어주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작품을 관람한다면 인생 깊게 다가올 것이다”고 피력했다.

비엔날레 전시 장소 또한 장소에 걸맞은 작품을 배치한다.

이 감독은 “예술공간 집에서는 한옥집 공간의 특성을 살려 병이 든 아내를 보살피는 남편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무각사는 불교적 삶의 순환과 철학적인 명상을,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은 자연재광과 어울리는 아마존 강변의 작업을,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한국화와 도자기 등 역사적 유물과 관련 있는 작품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광주항쟁과 같은 일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했다.

이 감독은 “이란 하집 시위, 미국 조지폴로이드 사건, 미얀마 내전 등 광주항쟁과 같은 일들은 슬프지만 반복되고 있다”며 “저항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언젠간 승리한다는 미래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시민은 5·18에 대한 긍지를 갖고 국민은 한국에서도 훌륭한 전시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전시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나주 금성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보물 ‘나주 금성관’ 해체·보수 문화재수리기술휘 조건부 가결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객사(客舍) 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보물 ‘나주 금성관’을 일부 해체해 보수한다.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휘위원회는 최근 열린 산하 보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나주 금성관의 해체·보수 공사 안전을 논의한 뒤 조건부 가결했다.

나주 금성관은 조선 시대 지방 고을의 중심 공간으로써 쓰인 객사 건물이다.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를 두고, 초하루와 보름에 멀리 계신 임금을 향해 행하는 의례인 망궐례(望闕禮)를 올리거나 지방을 방문한 사신·관원 등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2019년 보물에 오른 이 건축물은 그간 구조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목재가 마르면서 틈이 벌어지거나 파손, 부식 현상 등이 확인되면서 2017년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하위 등급인 E·F 등급 판정을 받았다.

2020~2021년 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는 일부 기둥의 내부가 심하게 부식된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상당 부분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부 해체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는 “목재 부후(腐朽·물질이 세균 따위의 작용으로 나쁘게 변함) 등으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둥을 교체하기 위해 건물의 공포(처마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만든 구조) 이상 부분을 해체해 보수하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기술휘위원회는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된 공포 이상을 해체해 보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나무 부재의 연륜(나이테) 연대와 단청 보호, 기록화 등을 위한 조사·분석을 반영하고 (문화재를 둘러싸는 시설물인) 가설 덧집은 형태를 조정해 규모를 축소할 것”을 조건으로 결었다.

문화재청과 나주시 등은 설계도를 보완한 뒤 본격적인 해체·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예술인파견지원 참여 기관·예술인 모집

전남문화재단이 예술인의 직무영역 개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23 전남 예술인파견지원’에 참여할 10개 기관과 예술인 50명을 모집한다.

13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2023 전남 예술인파견지원은 기관에는 예술을 통해 이슈와 과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예술인에게는 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직업 역량과 예술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30시간 이상의 예술협업 활동을 수행하고, 리더예술인은 월 140만 원(연 840만 원), 참여예술인은 월 120만 원(연 720만 원)

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사업 신청 자격으로 기관은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이나 마을 등 단체로 예술인은 전남 도내 거주 중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기관은 24일까지 예술인은 오는 4월 7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ncf.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는 “전남문화재단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ACC 서포터스 활동 시작

콘텐츠 등 체험 의견 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민을 잇는 소통창구이자 자문 역할을 할 제2기 ‘ACC 서포터스’가 출범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문화교육실에서 제2기 ACC 서포터스 발대식을 열고 서포터스 30명을 위촉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향후 활동 계획과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전국에서 선발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30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문화교육실에서 제2기 ACC 서포터스 발대식을 열고 서포터스 30명을 위촉했다. /ACC 제공

으로 구성된 서포터스는 올해 말까지 ACC가 선보이는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 등을 체험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느낀 의견을 제시한다. ACC

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알리기 위한 누리소통망 활동을 펼쳐며 ACC의 응원단이자 후원자로도 활약한다. /최진화 기자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형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www.shsa.kr

대형건물용 실내기 시스템에어컨 360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현대명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서광주IC, 용봉진입로, 문화소통로(일방통행로), 전자랜드, 용봉점, KFC, 대계수산, LG전자, 용봉점

대표이사 **신철우**

Certificate of Samsung Star Partner

2022년

삼성전자공조시스템 인증

2022년

삼성전자공조시스템 인증

대형건물용 실내기 DVM S2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